

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하반기 4805대 지원신청 접수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아이조아 부산조아’ 지속 운영

부산시는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진행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 자동차 4805대로 승용차 3913대, 화물차 722대, 버스 160대, 어린이 통학차 10대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상반기 성과를 보면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한 2895대를 보급했다. 세부적으로 승용 2413대, 화물 442대, 버스 40대가 포함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보급 물량을 대폭 늘렸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승용차는 대당 최대 810만원, 화물차는 최대 1380만원, 어린이 통학차는 최대 1억3500만원을



부산시청 전경

지원한다. 다만 구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적용된다.

이번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 지원 기준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개인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사업자 자격과 개인 자격으로 각각 1대씩 총 2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차량 유지 관리 비용 절감으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와 ‘지역 할인제’를 지속 운영해 전기 자동차 보급 확산을 도모한다.

2025년 전국 첫 시행 중인 아이조아 부산조아는 출산 가정 대상 승용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 인구 감소 및 출산 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한다.

지역 할인제는 시민이 참여 업체의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업체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

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상반기 물량 2000대가 조기 소진돼 하반기 추가 2000대를 확보했다. 참여 업체도 상반기 3개사에서 현재 10개사로 증가해 시민 선택권이 확대됐다.

전기차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소음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을 현재 접수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 전기 이륜차 144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에는 기존 상반기 잔여 물량을 포함해 총 856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 이륜차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30만원, 중형 최대 270만원, 대형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하반기에도 승용차량의 재구매 제한 기간은 2년”이라며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 열차 여행상품 선봬

울진군은 오는 22일 코레일 강원본부와 협력해 당일 여행상품 ‘울진에서 준비한 우리 짝 여행’을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강릉역에서 출발해 울진군의 주요 관광지인 전통시장, 그리고 제철 먹거리를 아우르는 코스로 구성됐다. 철도 연계 관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이 열차는 1인당 1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운영된다.

여행 코스는 해안과 내륙으로 나뉘며, 울진 5일장인 바지계시장 등지를 포함해 지역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됐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하미멜론

/해남군

해남군, 하미멜론 본격 출하

해남군은 올해 신소득 하미 멜론 조기출하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 7월초부터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신소득작목 발굴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자체 실증시험을 통해 하미멜론 품종을 도입, 올해 처음 실시된 시범사업이다. 시장 조기 출하를 위한 하우스 보온필름, 예냉시스템 등의 시설 및 기술지원이 이뤄졌다.

군은 향후 새로운 멜론 품종별 특성과 소비자 기호를 분석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고품질 멜론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화의전당, ‘아랍영화제’ 개최

영화의전당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국내 유일의 아랍 중심 영화제인 ‘제14회 아랍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랍의 삶속으로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아랍 22개국을 대표하는 작품들 가운데 엄선된 총 12편의 화제작을 소개한다.

레바논,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12개국에서 제작된 장편 9편과 단편 3편을 상영하며 다채롭고 생생한 아랍 문화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창원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창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협업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권익 구제 서비스다.

상담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용 회복 및 채무 조정, 폐업 후 재창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전문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사천공항을 우주항공 허브로” 경남도,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인프라 확장·국제선 취항 등 목표
정부에 국제공항 승격 건의 방침

경남도는 사천·진주의 우주항공산업 도시에 걸맞는 사천공항 인프라 확장과 국제선 취항 등을 목표로 경남 우주항공 허브공항 육성 범도민 서명운동을 7월부터 9월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도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중합계획에 사천공항의 단계별 인프라 확장과 국제선 취항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명 운동은 경남도·시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 사천공

항 여객 터미널에서 이용객 대상 홍보 캠페인과 참여 기관장 릴레이 서명을 통해 도민의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염원이 모인 서명 결과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전달하고,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여객 터미널 증축, 국제선 취항 등 공항 기능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우주항공 허브공항으로의 도약을 꾀한다”며 “국제공항 승격은 단순한 공항 확대가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서부 경남 경제·관광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시, 2차 추경 예산안 405억 편성

민생안정·재난대응 방침

대구시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안은 모두 405억 원 규모로 민생안정과 재난대응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97억 원, 특별회계는 108억 원이 각각 기정 예산보다 증가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53억 원, 국고보조금 209억 원, 특별교부세 18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재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제1회 추경의 취지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노후관로 정비 등 민생지원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필수사업만 선별해 편성

했다.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은 소비 부진에 따른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96억 원을 편성해 총 28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을 발행하고 자동차 부품기업 구직자·재직자고용 안정지원금 10억 원을 편성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산불·화재·지반침하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 대응 예산 164억 원을 편성했다.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3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문정~상망 연결 도로, 국도28호선 지정

영주시 순환도로망 구축 사업 결실

영주시가 추진해온 순환도로망 구축의 핵심 구간이 마침내 국도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문정교차로에서 상망교차로를 잇는 도로가 국도28호선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산업단지 접근성과 도시 외곽 교통 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국도교통부는 영주시 문정동에서 상망동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국도28호선으로 신설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총연장 9.3km로, 이 중 6.5km는 신설되는 구간이다. 출발점은 국도5호선 문정교차로이며, 종점은 국도36호선 상망교차로다.

이 노선은 영주시 외곽을 따라 연결되는 순환도로망의 마지막 연결

축으로,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도 지정으로 도시 동서축 교통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로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직결되는 주요 노선이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도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도 지정은 입주 기업의 물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도로가 향후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제7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전남도,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연다

전라남도의 섬에서 15개국 외국 청년 워크캠프가 열린다.

전라남도가 ‘제6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오는 19일까지 7일간 신안군에서, 8월 8~12일 완도군에서 각각 개최한다.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전남 섬의 가치를 국내외 청년과 공유하고, 자발적 봉사·문화교류를 통해 섬 주민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워크캠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등 15개국에서 입국한 외국 청년과 국내 체류 외국인, 한국 청년 등 총 50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2026 여수세계박람회 핵심 주제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함께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현장

/전남도

토론하며 협력할 예정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청년이 공동체와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워크캠프가 섬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